

아시아 최고 마임리스트들 광주에



오는 22~23일 한국·일본·중국·태국·대만 등 최고의 마임리스트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마임축제가 진행된다.

22~23일, 5개국 20개팀 집단 마임극 최초 공개 민주·평화 메시지 퍼포먼스...시민 참여 공연도

한국·일본·중국·태국·대만 등 최고 마임리스트들이 아시아 최초로 한 자리에 모인다.

대한민국 최고의 마임 아티스트 유진규와 중국 기예단 소속 아티스트 콩 듀웨이, 우 예팡, 일본 공연계에 마임 열풍을 불러일으킨 하시모토 후사요, 태국의 '마임 개척자' 로 불리는 에논키카손, 대만의 왕 위중 등은 오는 22일 광주프리마켓 티밭을 통해 민주와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집단 창작 마임극을 최초로 공개한다.

22일 오후 4시부터 23일 자정까지 무료로 진행되는 마임 축제는 5·18민주광장 분수대를 중심으로 20개의 텐트에서 각 팀의 공연이 진행된다. 공연 무대이자 '평화의 몸짓'으로 소통하는 아티스트들 간의 교류의 장이 되는 5·18민주광장을 아시아 평화의 공간으로 확장시킨다.

5개국 20여개의 팀은 각자의 대표 공연을 차례로 선보인 후,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집단 퍼포먼스를 22, 23일 양일간 8시 40분부터 9시까지 두 차례 공연한다.

한국을 대표하는 마임리스트 유진규 씨는 이번 축제를 위해 땅과 색의 경계를 허무는 남북 평화 메시지를 담은 '한 번 더 날아보자'를 새롭게 준비했으며, 중

국 기예단 소속 아티스트 콩 듀웨이와 우 예팡은 'ACROS SHOW'라는 작품을 통해 프랑스와 스페인, 뉴질랜드 등지에서 큰 인기를 끈 경극과 변검, 아크로바트의 인기 에피소드를 총결집했다. 하시모토 후사요는 일본 전통 무용극에 마임을 결합한 즉흥 공연을 펼쳐 보인다.

시민참여 퍼포먼스도 마련될 예정이다. 오후 4시, 공연자와 시민들이 광주 5·18민주광장부터 중앙로 일대에서 광주의 아픔을 '민주와 평화'로 승화하는 퍼레이드를 펼친다. 광주를 짓밟았던 군화의 흔적을 시민들의 발걸음으로 지워내는 퍼포먼스부터 '민주주의는 멈추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표현한 거대한 공이 등장하기도 하며, 북한까지 가는 기차, 억압을 해소하는 종이비행기와 날개 등 공연자와 시민들이 평화로 가는 길을 걷는다.

23일 오후 5시 18분에는 광주 5·18민주광장 시계탑에서 흘러나오는 '임을 위한 행진곡'과 시계탑 앞에서 펼쳐지는 공연자들의 퍼포먼스 등 5·18민주영령들을 위한 추모 무대도 진행된다. 봄에 매단 군화를 벗어 던지고 평화의 미래로 나아가는 몸짓을 이어간다.

문의 062-223-0410. /이보람 기자

'남북 민간 문화교류 활성화' 포럼

아시아문화원-광주·전남기자협회 공동 주최

광주·전남기자협회와 아시아문화원이 남북 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한다.

아시아문화원은 민간 중심 남북 사회문화와 교류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포럼을 20일 오후 4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 지하 4층 강의실2에서 연다고 밝혔다.

주제는 '한반도 평화시대의 남북 문화 교류 방향'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판문점 선언과 북미 정상회담 등 역사적인 평화와 화해 시대가 도래하는 시점에서 민주·인권·평화 도시인 광주의 선도적 역할 수행 방안을 모색한다.

이날 행사에서 국내 남북문제 전문가인 정창현 현대사연구소 소장의 기조발제에 이어 광주지역 남북문제 전문가인 정영재 광주시 남북교류협회 상임이사가 '남북 사회단체 교류'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김영집 지역미래연구원장이 남북 문화교류에 관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시아문화원 관계자는 "이번 포럼으로 한민족의 사회문화적 동질성을 회복하고 교류를 활성화해 지역사회가 남북 교류 불교를 뜨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연수 기자

젊은 국악인재 8명 협연

내일 시립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청년시대'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이 유능한 신진 국악인의 연주기량을 펼치는 제116회 정기연주회 '청년시대'를 개최한다. 20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이번 공연은 시립국악관현악단이 젊은 국악 인재를 발굴하고 지원하고자 등단 무대로 협연 공연의 하나다.

공연에 앞서 전국 대학 국악과 및 대학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악, 관악, 판소리, 가야금 병창 부문을 선발 공고했으며, 지난달 협연무대를 위한 오디션을 통해 신진 연주자들을 선발했다.

올해의 협연자는 고혜수(한국예술종합

합학교 국악과), 박지영(목원대 국악과), 이수미, 최인화, 인종영, 김재훈, 안다인, 나세리(이상 전남대 국악과) 등 총 8명이다.

이들과 함께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최원록 부지휘자가 지휘를, 광주시립창극단 이정주씨가 사회를 맡는다.

공연은 '청년시대'를 주제로 협연자들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국악관현악과 호흡을 맞추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티켓 가격 전석 1만원. 예매는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문의 062-613-8243. /이연수 기자

추억의 노래로 온 가족 세대 공감

시립소년소녀합창단 23일 정기연주회



시립소년소녀합창단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26회 정기연주회가 오는 23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엄마 아빠 추억 속으로'란 주제로 운영문 지휘자와 시립소년소녀합창단 44명이 출연한다.

이번 정기연주회는 친숙한 합창음악을 통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첫 무대는 추억의 만화영화 주제곡을 들려준다. '엄마 찾아 삼만리', '들장미 소녀 캔디', '플란다스의 개', '요술공주

밍키' 등을 만화영상과 함께 선보인다. 요즘 세대들에게는 생소한 만화들이지만 여전히 익숙한 멜로디와 친근한 가사는 전 세대를 아우를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무대는 7080 팝송을 들려준다. 일본 작곡가 센주 아키라의 대표곡으로 영국 리베라합창단이 불러 유명해진 곡인 'Eternal Light'을 비롯해 1970년 초 팝계에서 최고 인기를 누리 카펜터스의 대표곡인 'Yesterday once more',

1976년 아버의 경쾌한 리듬의 디스코 곡 'Dancing Queen'을 들려준다.

세 번째 무대는 7080 가요를 들려준다. '모란동백', '꿈의 대화', '편지' 등 7080시대를 풍미했던 노래들을 소년소녀합창단이 재해석해 부른다. 세월이 흘러도 명곡의 감동과 의미는 변치 않고 세대를 아우르는 시간이 될 것이다.

특별 출연 무대도 마련된다. 혼성합창단 광주챔버 싱어즈가 출연해 '청산에 살

리라', '고향의 봄', '광야에서' 등 가곡, 동요, 가요를 들려준다.

고교 동창 다섯 명으로 구성된 통기타 그룹 기나고동은 '백일몽', '바위섬'을 부른다.

마지막 무대는 출연자 모두 함께 '두 개의 작은 별', '눈이 큰 아이'를 부르며 마무리 된다.

전석 1만원, 문의 062-613-8246. /이연수 기자

강연군 화백에게 듣는 지역 미술의 역사

GB작가스튜디오 탐방

광주비엔날레가 지역 밀착형 정기 프로그램 월례회 일환인 GB작가스튜디오 탐방 열한번째로 강연군 화백의 작업실을 방문한다.

이번에는 지역 미술계의 산증인인 강연군 화백과의 만남이라 더욱 의미 있다. 20일 오후 3시 30분 동구 소태동에 자리한 강 화백의 스튜디오에서 강 화백과 조인호 광주비엔날레 전문위원의 대담 및 참석자들과의 대화 형식으로 작가스튜디오 탐방이 진행된다.

화백의 예술세계 및 주요 작품 흐름, 95광주통일제 및 당시 망월동 입구부터



강연군 화백

묘역 주변에 설치됐던 '하늘과 땅 사이 IV' 관련 이야기, 1997광주비엔날레 총괄 운영자로서 회고와 보람 등 60여 년 동안 화업을 이어온 지역

원로작가로부터 지역 미술의 역사를 들 어볼 수 있는 자리다.

문의 062-608-4233. /이연수 기자

2층주택, 전체 수리했습니다. 사정상 급매합니다.

-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383번지
 - 대지106평, 건물42평
 - 1/2층 - 각 방2 화1 거실
 - 혁신도시에서 15분, 신북에서 5분
 - 집마당까지 차량진입가능, 텃밭(10평)있음
 - 시세 - ~~1억 1000만원~~
- 사정상 싸게 팝니다. - 일시불 6400만원
H. 010-6834-7400

